기획취재 경희발전 5개년 계획안의 구성과 도입배경

경쟁시대 파도 헤쳐나갈 발전의 초석

"2010년 문 닫는 대학 생긴다" 위기감 팽배

경영 효율화와 교육개혁으로 상황 타개책 마련

교육개방이 확실시됨에 따라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건국이래 대학의 존립자체에 대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춘 대학만을 선별육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대학은 자연도태 되리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각 대학은 잇따라 학교발전안을 내놓았고 우리학교도 대학종합평가기획단을 설치하고 경희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본보는 간단히 교육개방의 배경과 대학평가제의 역사를 정리하고 우리 학교의 발전계획안을 소개한다.

〈편집자 註〉

요즈음 널리 쓰이는 말 중에 개방화·국제화·경쟁력 만큼이나 위력을 발휘하는게 있을까? 경쟁력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생길 지경이다.

그 경쟁력 이데올로기로 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은 적악시되고 여느때보다 노사화합의 목소리가 기세를 올리고 있다.

경쟁력이라는 이데올로기

대학은 어떠한가. 이미 우리학교 노조는 '대학의 개혁, 우리의 목표입니다. 변화하는 직원, 개혁의 시작입니다'란 틀래카드를 내걸고 학교개혁과 발전계획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표명했고 총학생회 역시 학교가 합리적인 방안만 마련한다면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제1의 대학으로 꼽히는 국립 서울대조차도 세계 5백위 안에 들지 못했다는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에서 교육개방이라는 위협 앞에서는 대학 역시 경쟁력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날 재간은 없을 것이다.

교육시장에 대한 개방논의는 91년에 있었던 UR서비스무분 협상에서 교육부문이 의제에 포함되면서 부터였다. 이때 우리 정부의 개방계획에는 이것이 포함되지 않아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번 최종 개방계획서에도 제외되었으나 다음 협상때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97년 교육개방

92년 양자 협상에서 EC와 호주가 전문 직업훈련, 외국어 교육, 대학교육 등에 대한 개방을 제의했고 93년에는 한미간 영업 환경 개선 협상에서 미국이 학원을 개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 신경제 정책의 외국인 투자 5개년 예시계획 등 외국인투자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다른 업종들과 함께 95년에 기술 및 예·체능계 전문학원, 96년 외국어 및 입시계 일반학원을 개방하기로 확정했다.

뒤이어 미국정부는 지난달 16, 17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경제협력대화(DEC)에서 통신업과 교육분야를 앞당겨 개방하라고 요구했다.

우리나라가 96년에 OECD에 가입되면 97년 쯤에는 교육부문 개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 개방이란 ▲외국인이 직접 투자해 교육 기관을 국내에 설립하거나 ▲외국 인력이 국내에 들어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 ▲외국에서 교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외에 유학, 연수 ▲인력 이동 없이 통신매체 등을 통해 교육 서비스가 국내에 유입되는 등의 형태로 외국의 교육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1992년도 교육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모두 1백32개의 4년제 대학이 있다. 이 가운데 74%인 97개교가 사립대학이다. 학생수로 따져도 전체 약 1백9만 명 중 74%인 81만명이 이들 사립대학에 재학하고 있다. 21세기가 시작될 때쯤 한국대학에서 나타나게 될 한가지 변화는 이들 사립대학들이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급기야는 몇몇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할 만큼 생존위협이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학들은 별다른 준비 없이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대학의 입학정원보다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이 훨씬 많았던 까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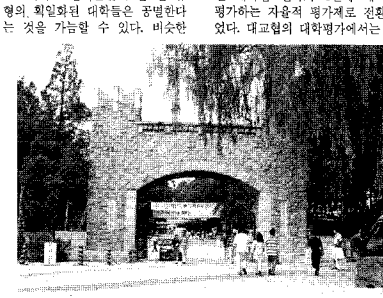
하지만 21세기가 되면 문제는 달라진다.

대학학령인구의 절대수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의하면, 한국의 대학학령인구는 1990년에 3백65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하였고, 그 이후에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2010년의 대학학령인구는 2백60만명쯤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이는 1992년 현재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전체 학생수 1백51만명의 두배가 안된다. 지금처럼 해마다 전문대학과 4년제대학을 몇개씩 신설하고 또 입학정원을 늘려 나간다면, 18년 후 2010년에는 대학학령인구가 곧 그대로 대학의 학생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러고 보면, 2010년보다 훨씬 앞서서 어떤 사립대학들은 기존의 정원규모도 채우지 못하는 현상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2010년 대학 정원 미달

4년제대학으로의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이었던 진학희망자의 감소도 예측하지 않을 수 없다.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있다. 굳이 4년제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밥 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격차가 있는 대우를 받는다면, 그들은 고등학교나 전문대학만을 졸업하고도 삶의 현장에 들어서려고 한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학력간의 임금격차가 크게 줄고 있다.

21세기로 접어들면 또한 한 유형의 획일화된 대학들은 공멸한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비슷한 종류의 전공분야를 갖추고 비슷한 수준의 학위(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 연구 봉사를 비슷하게 해 내는 대학보다는 한가지 주종목을 갖고 탁월성을 내보이는 대학이 사람들로부터 호응받을 것이다. 그것이 곧 대학의 특성화이며 21세기 한국의 대학들은 특성화를 통하여 역할분담 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다.



◇ UR에 의한 교육시장 개방은 재정기반이 취약한 국내 사립대학에 큰 위기감을 주고 있다

지난 몇년 동안 대학평가사업은 대학사회의 중대한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특히 1991년부터 대학평가제도가 평가의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대학의 행정 및 재정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평가인정제로 전환됨에 따라 대학사회는 대학평가에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992년에 물리학과와 전자공학과를 대상으로 평가인정제에 의한 대학평가를 처음 실시하였고, 1993년 3월에 상위권대학이라는 형태로 평가결과를 공표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학평가제도는 지난 반세기의 대학 역사에서 몇차례의 변천을 겪었다. 이 제도의 시대적 변천은 1950년대의 자유방임적 평가기, 1960년대의 감사적 평가기, 70년대의 실험대학 평가기, 80년대의 대학 자율평가기 및 90년대의 대학평가인정기로 대별할 수 있다.

대학평가는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단행된 일련의 교육개혁 조치와 1982년 대교협의 설립에 따라 당시 문교부 주도 아래 실시되던 관주도 대학평가제에서 대교협이 회원 대학인 전국의 4년제 대학을 평가하는 자율적 평가제로 전환되었다. 대교협의 대학평가에서는 대학 교수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각 대학이 자체 평가연구를 통하여 작성한 각 대학별 평가보고서를 접수하여 이를 바탕으로 서면이나 방문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대학평가제의 역사

이때 대교협의 대학평가는 대학인에 의한 자율적 평가로 대학 운영체계를 자체 점검토록 하고 동료교수의 전문적 진단을 받아 보도록 하는 장학적 평가의 성격이 강했으며, 평가 결과가 정부의 대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자료로 활용하지는 않았다.

1987년 12월 교육개혁심의회는 정부에 대학평가인정제 도입을 건의하였고 교육부는 대교협의 시행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91년부터 대학평가인정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의 추진 시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대학측의 의견에 따라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대교협의 대학종합평가를 전환하여 96년부터 실시키로 하고, 우선 학과평가인정제를 91년에 도입하여 10년 주기로 시행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처음으로 물리학과와 전자공학과가 92년도 평가대상학과로 선정되어 전 대학의 비상한 관심 아래 평가가 실시되었던 것이다.

대학종합평가는 평가 영역을 대학원 포함 7개 영역(교육, 연구, 사회봉사, 교수, 시설·설비, 재정·경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중 교육, 연구, 교수 부문이 점수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96년 대학 종합평가

지금 교육개방과 대학평가인정제를 앞두고 대학마다 학교발전 계획안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우리학교에서는 90년부터 자체평가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고 지난 1월 평가업무를 전담하는 '대학종합평가기획단' 사무국을 설치하였으며 '경희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발전안을 내놓고 있다.

그밖에도 학교측은 ▲행정제도와 절차를 간소화 ▲교과과정을 개편 ▲교수업적평가제를 준비 ▲연구비 규모를 확충하고 지급방법 개선 ▲도서관 전산화 작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학생회측은 학교측이 제시한 발전안에 대해서 획기적이기는 하나 학생이나 일반교수들의 참여가 부족한 상명하달식의 안이며 실행에 대한 구체적 방법 제시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경희발전 5개년 계획안은 개방화시대에 발맞춘 '대학의 세계화'와 연구교육기반 구축을 위한 '학문의 선진화', 대학조직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경영의 효율화'쇄임행정의 구현을 위한 '조직의 자율화', 민주적·합리적 사고 함양을 위한 '교육의 인간화'그리고 사회봉사 및 기여를 강조한 '사회기여의 활성화' 부분등 6가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학의 세계화 부문에서는 대학의 세계 진출과 한국학의 국제화를 위해 L.A.와 뉴욕 그리고 북경에 한방병원 분원을 설립할 예정이고 또한 해외 자매대학과의 상호 학점인정제와 복수전공제, 복수학위제가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또한 대학의 세계화를 위해 교내적으로는 영어와 컴퓨터 응용 능력을 졸업자격요건으로 명시하며, 영어강의 최소학점 이수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학문의 선진화 부문에서는 교수업적평가를 객관화하고 연구교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학외심사과정을 포함한 3단계 교수임용제도를 실시하는가 하면 교수승진제도를 개선하여 교수의 승진보류, 조기 진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활성화를 위해 교수의 조기 명예 퇴임제도를 실시하며 교수 1인당 학생수를 20명선으로 낮추기 위한 교수 충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

경영의 효율화 부문에서는 기업경영개념을 도입하고 대학조직을 효율성있게 개편하기 위해 사회적 수요에 따라 학과를 통폐합하고 현 단과대학 체계를 재편성 할 방침이며 대학원 행정기구를 폐지하고 석·박사과정의 운영을 각 학과에 귀속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재원의 확충을 위한 재단사업을 강화하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기여입학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직의 자율화 부문에서는 학과운영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학사운영과 예산편성을 학과중심으로 할 계획이며 서울, 수원, 광릉 캠퍼스의 운영을 독립하고 특성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교육의 인간화 부문에서는 윤리와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민주적·합리적 사고를 함양하기 위해 조경 및 편의시설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장학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분야별 장학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회기여의 활성화 부문에서는 산학협동과 사회봉사의 측면에서 중소기업지원단지를 학내에 유치하고 일반시민의 평생교육, 어학교육, 전산교육등의 교과과정을 설립할 계획이다.

〈염정미 記者〉

대학의 세계화	• 한의대와 한방병원 분원 해외설립(L.A., 뉴욕, 북경 등) • UN과의 협력으로 평화복지대학원을 UN대학원으로 발전 •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 국제관계학과와 Penn in Seoul 공동개설 • 벨기에 루벤대학,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과 의료원 합작 • 교수임용의 국제화 • 해외 자매대학과 상호학점인정제, 복수전공제, 복수학위제 도입 • 한의학과 양의학의 조화를 통한 제 3의학·제 3약학의 개발 • 영문출판과 번역을 통한 한국학의 보급 • 국제문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험적 학위프로그램 개발 • 영어와 컴퓨터응용 능력의 졸업자격 요건화 • 전공과목의 영어강의 확대 및 영어강의 최소학점 이수제 도입 • 외국 교환교수 및 유학생의 편의를 위한 국제회관 건립
학문의 선진화	• 학외 심사과정을 포함한 3단계 교수임용제도 실시 • 교수승진제도 개선-승진보류와 조기진급제 도입 • 교수업적의 포괄적·객관적·정량적 평가시스템 구축 • 국내외별로 세분회하여 계량화한 연구평가제도 • 강의책임시간이 1/3로 경감되는 연구전담교수제 도입 • 우수교수 영입을 위한 석좌교수제 도입 • 교수업적평가에 반영되는 강의평가 확대실시 • 매년 단대별 우수강의교수를 선정하여 영예부여 • 연구활성화를 위한 교수의 조기명예퇴임제도 실시 • 외국발표논문은 1, 2, 3급으로 국내발표논문은 3, 4급으로 차등화 • 교내학술지 게재논문은 연구성과로 불인정 • 강좌 및 논문지도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겸임교수제 도입 • 교수 1인당 학생 20명을 목표로 교수 충원 • 해외 연구능력 및 실적위주로 교환교수 선발 • 순환제 교내연구비제도를 폐지하고 자유공모제도로 전환 • 외부 연구프로젝트의 교내상응기금 조성
경영의 효율화	• 사회적 수요에 따라 학과를 통폐합하고 현 단과대학체계를 재편성 • 대학원 행정기구를 폐지하고 석박사과정의 운영을 각 학과에귀속 • 직원 및 보직교수의 객관적인 직무평가시스템을 개발 • 연공서열위주의 인사고과제도에서 능력과 육성위주의 제도로 전환 • 행정조직을 독립전문화하며 행정보직교수를 전문직원으로 대체 • 실적위주로 교내 연구소를 선별육성 • 재단 권한(경영권, 인사권)과 의무(교육투자)의 확립 • 교육재원의 확충을 위한 재단사업 강화와 기여입학제 실시
조직의 자율화	• 학과중심의 학사운영과 예산 편성 • 대학의 재정, 조직, 학사, 인사 등을 감시하는 대학자체평가실 신설 • 특수대학원의 독립재산제 • 서울·수원·광릉캠퍼스의 독립운영과 특성화 •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생의 자율정화운동 장려
교육의 인간화	• 복지향상과 정서함양을 위해 조경 및 편의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 • 경희가 주도하는 '밝은사회운동' 활성화 • 우수학생을 위한 평가·영예제도의 도입 • 미국의 피이·베타·카파(π, β, κ)와 같은 우등생써클을 지원 • 상대적 성적평가제를 장려하고 학사경고제도를 강화 • 장학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분야별 장학금 확대
사회기여의 활성화	• 중소기업지원단지(Techno Park)를 학내에 유치해 산학협동 활성화 • 일반시민의 평생교육, 어학교육, 전산교육 등의 교육과정 설립 • 캠퍼스 밖에서 특수대학원 프로그램을 운영 • 경희의 'GCS(지구협동사회운동)'을 세계적 의식개혁운동으로 확산 • 미 미시간주립대와 공동으로 세계시민교과서 사업보완, 확대 • '세계평화백과사전'을 DB화하여 세계에 보급 • '동양의학 대사전'을 영문으로 편찬하고 DB화하여 세계에 보급

◇경희발전 5개년 계획(요약)—시안

현代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기술의 現代, 세계의 現代

囊中之錐

낭 중 지 추

주머니속의 송곳은 가만히 있어도 두드러지게 마련입니다.

92년 最多 법인세납부,
종업원 주택보급률 95% 달성한 현대중공업,
93년 매출액 대비 공익투자 1위로 부상한 現代

반도체, 생명공학, 우주항공산업 등 첨단산업분야에
과감한 투자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 163개국에 수출하는 국제적 기업-現代

그동안 現代는 화려한 업적들을 내세우지 않고
묵묵히 한국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이제, 주머니속의 송곳처럼 두드러지는 現代의
자랑스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現代